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날이 새면 일터로, 어두운 밤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직장불자들의 일상. 그런 삶 속에서 일터불자들은 어떤 꿈을 키우고 있을까. 때론 일탈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배짱 좋게 사표를 던지려고 한다. 하지만 마음은 늘 그 자리. 그럼 일터불자들은 불교에서 무엇을 찾고 바랄까. 직장불자들은 말하고 있다. 돈, 결혼, 자녀교육, 건강, 처세, 승진 등 인생 고비 때마다 불교는 '지혜를 내어주는 창고'가 된다고. 본지가 이어와 관련, 직장불자들의 올바른 신생활을 돕기 위해 '일터불심 10대 화두'를 선정했다. 전문가 조언, 직장인들의 관심사 등을 담아 10회에 걸쳐 풀어헤쳐보기로 한다.

일도 신행도 '만점' 되는 비결은?

'모든 일이 바로수행' 가슴에 새기면 만사 OK!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직장불자들. 직장인으로서 100점, 불자로서도 100점이 되는 완벽한 일터불자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 그 길은 일터를 '수행처'로 여기는 마음가짐에서 찾을 수 있다. 일을 수행처럼, 수행을 일같이 하는 것이다. 일과 수행은 별개가 아니라서 일터에서 일터가 즐거워지고, 수행도 깊어진다. 그럼 직장불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업무와 이해타산으로 맺게 되는 인간관계 등으로 얽힌 일터를 어떻게 수행처로 삼고 있을까? 그 대답은 명쾌했다. '제업즉수행(諸業即修行)'이다. '모든 일이 바로 수행'이란 이 말은, 직장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일터수행의 모토다. 그렇다면, 일터에서 구체적인 자기변화 과정을 어떻게 점검하고 무엇 때문에 일터를 최고의 수행도장으로 삼는지 직장불자들에게 물어봤다.

우승택 지점장의 '평상심 유지하기'

하루 종일 증시 관련 데이터에 파묻혀 사는 '불자 CEO' 삼성증권 FN honors 종로타워 우승택 지점장(44·부동). 일터는 온갖 번뇌가 겹겹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매일 만나야 하기에, 결국 일터는 고통의 집합체라는 것이다. 미운 사람과 만나고(憎憎會苦),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求不得苦) 고(苦)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하지만 우 지점장은 '번뇌'를 통해 '보리(깨달음)'의 씨앗을 키운다고 말한다. 내가 직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번뇌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만약 업무 스트레스에 싸여 평상심(平常心)이 흔들려도 일터에서의 수행은 흔들린 마음을 곧바로 돌려놓는 힘이 있다. '참선이나 염불을 할 때 떠오르는 잡념과

망상을 마장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이 마장은 구체적·육체적·금전적으로 즉각 다가옵니다. 그 마장을 타고 넘을까, 아니면 발로 차고 지나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때 불교가 나침반이 돼 줍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 속에서 바른 길을 찾고, 중도 자리를 시시각각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하심·인욕·세심'

이 같은 생각은 흔히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환경미화원 일을 하는 불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서울 은평구청불심회원 이명자(60·불심행), 김정애(46·법계심), 김종임(47) 환경미화원은 그들의 일터인 공중화장실에서 하심(下心)과 인욕(忍辱)을 배운다. 이들은 처음 청소 업무를 시작했을 때, 하룻밤 만에 전행터가 돼 버리는 공중화장실의 모습에 질려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절망감을 맛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터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었다. 내 것 네 것 따지는 '이기심'이야말로 일터수행의 적이라는 사실을 일을 해나가면서 깨달았고 열심히 청소를 했다. 지금은 공중화장실이 '세심(洗心)' 공부하는 도량이 됐다고 말한다.

이명자 환경미화원은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지금 일하는 이 곳이 바로 도량"이라며 "거울이 더러울 때 깨끗이 닦으면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처럼 내 일에서 소박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10년 넘게 '일터 일일 수행점검표'를 써온 국토연구원 법무회원 김의식 책임연구원(56·연담도) 일터는 수행력을 키우는 도량처럼 여기고 있다. 자기 점검의 바로미터가 바로 수행. 김 연구원은 나만의 일터가 아닌, 환경을 더 나아가 동료들과 함께 하는 수행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생공심(共生共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글 쓰는 순서

- 1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2 직장 동료·상사·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3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출고 있습니까.
4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5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다 있다.
6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신행의 적
7 제대로 불교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8 한달에 한번 집중 수행 필요
9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10 인터넷은 신행정보의 보고



서울 은평구청 환경미화원 보살들. 6월 30일 그들의 '수심(修心) 도량'인 구산동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삼성증권 FNhonors 종로타워 우승택 지점장이 스크랩 해놓은 신행정보 기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직장은 계층조직입니다. 일터를 수행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상하관계가 동업중생이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매순간 확인하게 되면, 종교와 상관없이 일터가 수행처가 되는 겁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하면, 그 속에서 불법의 이치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일은 그대로 화두가 되고 그 수행력은 24시간 내내 지속된다고 설명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應無所住而生其心)'는 <금강경>에 나오

는 유명한 구다. 서울 마포경찰서 불교지도법사인 김진홍 대한민국의경찰불교회 사무국장은 업무에 임할 때마다 이 구절을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면 주저 없이 하라'는 말로 해석한다. 직장불자들은, 중국 국제 선사들의 <임제록>에서 나오는 '수처자주 임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을 그대로 어떠한 곳에 처하든 주인이 되어 그 자리에서 진면목을 보이라는 뜻으로 새기면 어떤 일든 성취감이 생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한국공인회계사불자회

한국공인회계사불자회는 경제계의 파수꾼으로서 기업과 일반투자자 및 정부 관계자에게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자 공인회계사들의 신행모임입니다. 창립 4년차를 맞은 불자회로서 어느 불자회보다도 뒤지지 않는 활동력을 선보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불자로서의 긍지와 깊은 신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인회계사라는 직업 설명부터 드러내겠습니다. 아마도 불자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길 겁니다. 공인회계사는 기업 등 일반적인



한국공인회계사 불자회원들이 지난 2001년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불교문화체험·군포교 지원 계획 가족단위 활동, 법회 활기 더해

재무와 회계와 관련해 그 경제적 가치와 자금 출입이 투명한가를 판정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회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지난 2001년 12월 22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불자 공인회계사 10명이 모여 총회를 열고 발기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2002년 1월 조계사 문화교육관 설립전에서 당시 조계사 주지였던 지홍 스님을 모시고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때의 환희심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우리 불자회는 꾸준히 사업을 알차게 전개해왔습니다. 첫 사업으로 많은 회원을 동참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지금은 회원이 25명이 넘습니다. 불자 공인회계사를 일일이 파악해

법수선원 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를 초빙해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 강의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불자회의 가장 큰 자랑은 가족 단위 신행활동을 벌인다는 점입니다. 가족 단위로 신행활동을 한다는 것은 회원간 화목을 높일 수 있고, 신행생활이 더욱 활기를 가질 수 있어 유익합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회는 다소 침체된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들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조직을 굳건히 다지고, 수도권 중심의 모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선지식 초청 법회를 열고, 불교문화체험 테마 법회도 가질 생각입니다. 이와함께 미래불교를 위한 연대 사업으로 군포교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박노영 회장(신현회계법인 부회장)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취임식
대한불교대승종 제9대 총무원장 법철당 혜심스님 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 불자님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시: 불기 2548(2004)년 7월 14일(수) 오전 11시
장소: 경기 성남 분당 뉴타운 웨딩홀 5층 (☎031-714-6800)
연락처: 총무원 033)435-4108
법철당 혜심스님 055)585-7993
011-507-2837
031)769-4334
011-202-4334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취임봉행위원회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0월에 비영리법인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가입대상
1. 불교를 신앙하시는 모든 분
2. 사찰(암)등록, 스님 및 법사 불교에 종사하시는 분
종교단체명칭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단마크는 본 종단에서만 사용가능함)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동 266-76
02)391-8540 / 019-548-8588